

지카바이러스 주의 안내



- 중남미 지역에서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이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므로 해당지역 여행시에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임신부가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소두증 신생아 출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니 임신부는 유행국가 여행을 출산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 ('16.2.17. 기준)

지역	최근 2개월 이내 발생국가	
	유행국가(22)	산발적 발생(9)
중남미 (26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마르티니크, 멕시코,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나마, 푸에르토리코, 프랑스령 기아나, 과들루프, 니카라과, 수리남, 온두라스	가이아나,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볼리비아, 프랑스령 생마르탱, 자메이카, 코스타리카, 네덜란드령 퀴라소, 네덜란드령 보네르
오세아니아	통가, 미국령사모아, 사모아	-
아시아	-	태국
아프리카	카보베르데	-

*최근 발생국가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www.cdc.go.kr 또는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http://travelinfo.cdc.go.kr> 참고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

- 증상 발생 2주 이내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를 여행(체류)하였고
- 37.5°C 이상의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증상 중 1가지 이상 동반

서울대학교 구성원 대응지침

-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109)로 전화**

또는

② **학내 보건진료소나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 여행력을 알리십시오!)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진단된 경우

① 소속 기관의 감염병 관리 책임자에게 상황 보고

② 각 기관 감염병 관리 책임자는 환자 발생 시 학내 보건진료소에 즉시 유선 보고(교내 5339)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대상별 행동수칙!

제작일:2016.2.5

임신부 행동 수칙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로의 여행을 출산 이후로 연기 권고

일반 국민 행동 수칙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로 여행할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 현황을 확인해 주세요.

* 최신 발생국가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및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travelinfo.cdc.go.kr)에서 지속 업데이트 중

모기 퇴치 제품(모기 기피제) 및 밝은 색의 긴팔 상의와 긴바지 의류를 준비해 주세요.

여행지가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인 경우 연기를 고려해 주세요.

여행을 연기할 수 없을 경우 여행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여행시 일반적 주의사항을 상담받고 태아의 건강상태 체크해 주세요.

모기 예방법을 여행전에 숙지해 주세요.

여행 전 준비사항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해 주세요.

야외 외출시에는 긴팔 상의와 긴바지 의류를 착용해 주세요.

모기는 어두운 색에 더 많이 유인되므로 활동 시 가능한 밝은 색 옷을 착용해 주세요.

모기 기피제는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출된 피부나 옷에 얇게 바르고, 눈이나 입, 상처에는 사용하면 안됩니다.

* 일반적으로 허가된 모기 기피제는 임신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전 주의사항 확인 필요

여행 중 준비사항

기타 모기 퇴치 제품 사용시 주의사항 확인 후 사용해 주세요.

귀국한 뒤 2주 이내 의심증상(발열, 발진,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세요.

의료기관 방문시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 여행력을 알려 주세요.

산전 진찰을 받던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태아 상태를 모니터링해 주세요.

증상이 발생하지 않아도 1달간 헌혈을 금지해 주세요.

남성의 경우 귀국 후 1달간 콘돔을 사용해 주세요.
* 확진일 경우, 회복 후 6개월간 콘돔 사용 권고



지카바이러스 Q&A

Q. 지카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 A.**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사람에게 전파되며 사람간의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일상적 접촉 외에 ▲감염된 사람의 혈액을 수혈 받은 경우 ▲산모에서 태아로 수직감염 ▲성적 접촉에 의한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 * 국내에서는 해외여행 후 1달간 헌혈이 금지되므로 수혈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Q. 지카바이러스는 공기를 통해 사람 간에 전파되나요?

- A.** 주로 모기에 의해 전파되며 공기를 통해서는 전혀 전파되지 않습니다.

Q.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증상은?

- A.** 잠복기는 2~14일로 감염된 모기에 물린 후 보통 2~7일이 지나서 증상이 시작됩니다. 주요증상은 발열, 발진, 관절통, 결막충혈이고, 그 외 근육통, 두통, 안구통, 구토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증상은 대부분 경미하며 2~7일 정도 지속될 수 있고 사망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 증가와 함께 소두증 신생아 출산 증가와 길랑바레증후군(급성 마비성 질환) 증가 경향이 보고되고 있으나 WHO, CDC 등의 최종 연구결과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Q. 지카바이러스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가 필요한가요?

- A.**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격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표준예방지침을 준수하면 됩니다.

Q. 지카바이러스 진단검사는 무엇이며 서울대학교병원에서도 시행하나요?

- A.** 지카바이러스 진단은 혈청에서 RT-PCR로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하여 확진합니다. 학내 보건진료소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합니다.

Q.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어떻게 예방하나요?

- A.** 현재까지 예방접종은 없으나 모기 노출을 최소화하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 활동 시 모기기피제 사용과 긴소매, 긴바지 착용을 하고 수면 시에는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A.** 지카바이러스의 치료약과 예방접종은 현재 없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이 필요하고 모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모기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Q.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여행을 출산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행이 불가피한 경우 여행 전 의사의 상담을 받고 여행 시 모기 회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행지역 여행 후에는 잠복기를 고려하여 임신은 한 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